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The JeonBuk Times



2025년 6월 20일(금) 제 3116호

전주시, 스마트도시로 맞춤형 서비스 '주목'

정부 '거점형 스마트시티' 선정 전국 유일 총 324억 투입 생활SOC 등 12개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찾아가는 생활 SOC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을 지키는 건강・ 안전 AI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 민국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변화할 전 망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 통부가 주관 '2025년 거점형 스마트시 티 조성'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전국 유 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도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실 증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 기 위한 스마트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부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올해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AI 융합 거점 스마트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160억 원, 민 간 투자 4억 원 등 총 324억 원을 투입 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북 스마트 리 전(Region)의 출발점, Adaptive city(어 댑티브 시티, 맞춤형 도시) 전주!'를 비 전으로 △찾아가는 생활 SOC △초개 인 맞춤형 AI 헬스케어 △시민 환원형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도시 안전 등 4개 분야 12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ICT 산업 육성을 이끄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혁신 실증 공간인 '전주 스마트 열림터'를 구 축하고, '전주 데이터 이음 플랫폼'을 통해 도시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 해 시민·창업자·기업 등에게 데이터 기반 AI 기술 교육과 창업 기회도 제공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진인프라와 현대 자동차(주), 기아차 등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주 시정연구원, 전주대학교, ㈜심시스글 로벌, ㈜이에스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관·학 협력 기반의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 정이다.

이를 통해 각 서비스와 연계된 전북

광역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도내 지자 체는 물론,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 플 랫폼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에 대응할 수 있는 모사업은 전주 지역 김윤덕 국회의원괴 스마트 도시조성과 연계한 영상메시지 와 더불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설명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이번 공

이성윤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 롯해 이춘석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지원 을 통해 선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 '2025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전국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사진 은 전주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성도. <사진=전주시>

道, 피델리티·BNY 손잡고 금융허브 도전

금융중심지 뉴욕 보스턴 방문 전주사무소 추가 유치 제안 국정과제 반영 발판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8일까 지 3일동안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 해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 하고 금융도시 조성 위한 방안을 논의

이번 방문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 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일환이다.

도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비 전을 뉴욕과 보스턴 현지 글로벌 금융 기관과 공유했다.

김관영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현지의 국내 금융사 주재원과 월가의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와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 하는 데 뜻을 모았다.

18일에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 국 최고 은행인 BNY 본사를 방문해 카 씽카 월스트롬(Cathinka Wahlstrom)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최고상 업책임자)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사업 확대, 인재양성, 사회공헌 활 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NY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최초 상장 되어 53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는 24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 인 금융기관이다. 지난 2019년 은행 부 문과 2023년 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 소를 개소하며 전북자치도 및 국민연금 공단과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또 전북자치도는 보스턴에 위치한 세 계 3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 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를 방문 해 카밀 칼스트룸(Kamill Kallstrom) 최

고투자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 등과 간담을 갖고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며, 자산운용 중 심 금융생태계 조성 협력을 요청했다.

피델리티는 운용자산(AUM)이 5조 9 천억 달러로, 블랙록과 뱅가드에 이어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다. 국민 연금공단의 해외주식 및 ETF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ESG 투자 등 글로벌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금융기업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였으며, 전북을 기후에너지, 스마트농생명 연계 자산운 용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전 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 에는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사무소 를 두고 있으며, 차기 국정과제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반영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성윤 의원, 내란범 구속기간 연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윤석열 출퇴근 재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 시을)은 19일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 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 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 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 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 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이성윤 의원

2차까지 연장 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 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 태로 재판을 받는다.

2개월 단위로

이성윤 의 원이 대표발

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②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 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 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 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 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 지 늘어난다. /정재근 기자

"제2경찰학교 남원으로" 1천人 결의

운봉서 유치 결의대회 시민 영호남 경찰 함께 선언

19일, 남원시 운봉 허브밸리 일원에 서 영·호남 경찰 직장협의회와 남원시 민이 함께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 원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9월, 제2중 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경찰청 공모 에서 남원시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 후, 국회 대토론회와 영·호남 유치 결 의대회 등으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지 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준 의미 있는 장이었다. 행사에는 영· 호남 경찰 직장협의회 본부장단과 시 군 회장, 그리고 남원시민 및 유관기 관·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에 간절



한 바람을 함께 나누며 염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경기남부, 부산, 제주 경찰 직장협의 회 본부장들도 남원 유치 지지에 뜻을 함께해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손범수 경찰청 직장협 의회 전북 본부장은 "영호남의 중심지 이자 경찰정신 교육 상징성을 지닌 남 원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도, 국·과장급 인사

전북도는 19일 2025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 2036년하계올림픽유치단장(8월1일 자)에, 민선식 남원부시장이 농생명축





시 장 이 특별자

산 산 업

국장에,

강 영 석

익 산 부

치교육협력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또 인구청년정책과장 등 총 23명에 대한 인사도 7월 1일자로 전보인사했

년 하반기 국·과장급 <인사명단 10면>

이번 인사에서 국장 급에서는 유희숙 국장





/김영태 기자



對美 관세 전북 연간 수출액 1,621억 감소

한은전북본부,연구조사 철강관농기계순타격 연간역내생산2007억감소 정책지원등대책마련시급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9일 조사연구보 고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 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를 발표했

美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전북 수출 및 경제 전반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에 대 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전북은 전국과 상이한 수출 구조 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산 업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

과했으며 이외에도 전 품목에 대한 보편 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 표했다. 이는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통상 압박이 이뤄졌던 트럼프 1기에 비 해 강화된 모습이다.

2024년 전북의 對미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이 는 농기계·건설광산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급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반 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한 전국과 대조된다. 또 전북은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전국과 달리 중견·중소 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였다. 전북의 주요 수출 경쟁국은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 나타났다.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효과(-1,23억달러)와 대체효과(+0.05억달러)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연간 수출액은 1,621억원(1.19억달 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북 전체 수출(63,6억달러, 2024 년 기준)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관 및 철강선(-20.9백 만달러), 농기계(-19.5백만달러), 자동차 부품(-18.2백만달러) 순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관 및 철강선과 자동차 부품 의 경우 고율 관세 부과로 여타 품목 대 비 수출 감소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 석됐다.

수출 감소에 따른 역내 파급효과로 전 북지역의 對미 수출 감소에 따라 연간 기 준으로 역내 생산은 2,007억원, 부가가치 는 560억원, 고용은 681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전북의 수출 및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 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美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수출 감소는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고용 감소로 이 어져 지역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美 관세정책으로 어려 움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 대응 정보 제공, 금융 부담 완화 등의 지원이 신속하고 통합적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가공품 등 유망소 비재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전 북 수출의 회복 및 안정회를 도모해야 한 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 전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을 통해 첨단 소재 산업 육성에 유리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미래 유망 산업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재편하고 글로벌 수요 확 대에 대응해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 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민생솔루션 구축

소상공인 맞춤 상담·현장·심층솔루션

전주에서 아동복 브랜드 '에또뇽' 를 운영하는 청년 대표 A씨는 마케 팅 전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는 "현재 사업장의 마케팅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며 토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상담을 통해 매장 에 온라인 홍보용 촬영 공간과 고객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경영환경 개 선 사업을 연계 지원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매장 이미지 개 선과 고객 편의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 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북 민생솔루션'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 고 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 해 민생솔루션 체계를 구축해 올해 5월까지 약 130여 건의 지원이 이뤄

'상담솔루션'은 '소상공인 전용 콜 센터'와 온라인 창구인 '민생신문고' 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세 무, 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 시로 접수하고 있다.

'현장솔루션'은 지역 소상공인 단 체와 협력해 수요 기반의 실습형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심층솔루션'은 메뉴 개발 등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 지를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 상공인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 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김영태 기자

시도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선 '필요'

이원택 의원 등 국회 토론 화농어촌특별구정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 회)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 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 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 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 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계기관 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 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 거구 의원의 과소·과다 편성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

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 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 는 혼합형 모델을 도입하며 △특별자치 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 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 적 정수 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 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 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 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현재의 불합 리한 광역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20% 범위에서 가능한 조정 범위 또한 불이 익을 받는 지역이 상당해 인구 감소 지 역은 그 대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



다"며 "총 정수 산정 기준 조정 등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 로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 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 한 통과와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

/김영태 기자

서난이 도의원,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대표 발의

식품사막화 해결 공동체 육성 협력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 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 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 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 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 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



서난이 도의원

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 데 겪는 어 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 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고 있다.

막화 현상이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

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사 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식 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산림휴양시설 '이상 무'

산림휴양시설 35곳 숙박·위생·시설물 관리 강화

15일~8월 24일)를 앞두고 도내 산림휴 양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 검을 실시하며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12일까지 36일간 진행됐다.

방서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총 65명이 참여해 자연휴양림(13개소) 등 체계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성수기(7월 총 35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

△숙박 및 편의시설 구조 안정성 △전 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소방 설비 작동상태 △보건 위생관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와 시군 산림부서, 전기안전공사, 소 비한 안전대응 계획 수립 여부, 안전관 리 책임자 지정, 긴급대피 시스템 운영

>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 등 일부 경미 한 사항이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즉시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전점검 이후에 께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시군과 연계한 정기 모니터링과 추

특히 장마철과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 가 점검을 병행해, 휴양객들이 안심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자연휴양림 등 산 림휴양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약은 '숲나 들e'에서 가능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전 이번 점검은 소휴양림 안전운영 체계 조치 완료됐으며, 현재 모든 시설이 안 국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숲길 트레 킹 등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도 함

/김영태 기자

박정규 도의원, 농촌유학 거주 공간 대안 모색

"학부모 정착 전용 거주지 확보 픽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 실)은 19일 농촌유학 가정의 거주시설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 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유학 학부모들 이 안정적 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 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 부모와 임실 청웅초등학교 이은영 교 장 선생님 등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



어려움, 행정 절차 의 한계 등에 대 해 토로하고, 장기 적으로 농촌유학 가정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용 거주지 확보

거 여건과 관련한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 계자들은 이에 대해 가능한 지원 방안 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꼭 잡고



뛰지 말고





안전선 안에서

전주시, 시민 참여형 민생살리기 확산

'전주함께장터' 큰 호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문화·예술 결합 확대키로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회복·성장·행복에 발맞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전주함께장터' 민생살리기 프로젝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

전주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 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시민 들의 민생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 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시민과 기 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경제 생 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 치고 있다.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 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단발성 이벤트가 지 펼쳐지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아닌 일상 속 시민 참여형 민생 살리기 의 경우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참여 속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함께장터'는 지난 세 의 장으로 운영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달 동안 26개 기업과 단체, 기관이 자발 적으로 참여했으며, 약 7080만 원 규모 의 기부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후 △소상 공인의 매출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실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성과를 지속 적으로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동시에 지난 4월에는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혁 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 다. 로 지역 골목상권 이용 행사를 진행하 고, 지난달에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든 플리마켓인 '전주 이팝나무장터' 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시민 주도형 행사와 다양한 상생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 에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축제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에는 (사)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가 기증한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가 열리고, 오는 25일부터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가 매월 정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에는 종교단체들의 자 발적인 참여로 기부 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진행되고, 9월에는 '한가 위 맞이 함께 더 큰 장터' 등 다양한 행 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축제가 이어진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산단 노 동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정책으 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장터'는 단순히 행정 주도의 소비 장 려 정책이 아니라 시민, 소상공인, 기업,



노동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실천적 연대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도모하 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 과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근 기자

기업 매출 증대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규 모집

23일~27일까지 접수 판로 확대·마케팅 지원

전주시가 지역 중소제조 기업의 성장 을 돕기 위해 우수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신규 모집에 나선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에서 생 상품의 주원료가 전주산이어야 한다. 산된 품질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을 접수한다.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전주시가 인증

하는 지역 대표 우수상품 브랜드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 팅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원이 제공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 공산품 또는 농·수·축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 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 련 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 기한 내 전주 시 기업지원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우수제품을 '바이전주 우수상품'으 로 선정해 판로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 지 식품과 생활용품, 전기·전자, 한지·지 류 등 다양한 분야의 42개사 61개 품목 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신규 6개사 등 총 22개사를 인증하고, 6963만 원 규모의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11개 인증기업에는 홍보물 다.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전시회 참가비를

그 결과 8개 기업은 미국·유럽 등 해외 수출에 성공하거나 신규 유통채널에 입 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9개사는 평균 20~25%, 최대 39%까지 매출이 증가하 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경쟁 력 있는 상품을 발굴해 소비자 신뢰를 얻 고, 기업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 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

/정재근 기자

전북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최종 21개 기업 선정

총 3억 2천만원 지원 관광 창업 아카데미 등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 된다. 사 이경윤, 이하 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관 광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최종 21개 기 서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SNS 마케팅 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 사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총 3억 2천만 원 규모 의 사업화 자금이 차등 지원되며△관광

△홍보 및 판로 개척 △투자 및 사업 연 계 프로그램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다 각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 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전 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 컨퍼런스룸에 전문 교육과 분야별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기 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1개 기업

창업 아카데미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이 지원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로, 선묵 관광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 총 21개 기업은 창업 단계에 따라 △예 비(6개사) △초기(7개사) △성장(5개사) △지역상생(3개사)으로 구분해 선발했다. 또한, 분야별로는 △지역 특화 콘텐츠 (14개사) △문화예술융복합(4개사) △실 감형 관광콘텐츠(2개사) △관광딥테크(1 개사)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핵심 목표로 주진됐으며, 올해는 '문화예 술융복합' 분야를 신설해 관광산업의 다 양화를 적극 도모했다.

안중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장은 "이 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유망 스타트업 들이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가능성과 차 별성을 갖춘 전북형 관광 창업 생태계 조 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체계적 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청년예술인 역량 강화 예술캠프

네트워크·예술인 연대 등 창작활동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지역 의 청년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가 초청 예술캠프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시 소통협력센터 에서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인 '청년 예술시. [점] '의 일환으로 '청년예술인 예술기획캠프'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안선우 극작가(전주대 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의 '함께 하는 예술' 강연을 비롯한 예술 분야 전 문가 4명의 강연과 더불어, 창작활동에 필요한 멘토링, 팀별 프로젝트 발표 및 피드백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예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술시. [점] '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인 25팀 을 대상으로 △예술로 만남(네트워크, '제6회 청년독립예술제'를 통해 그간 준 워크숍) △예술로 연대(타지탐방, 청년 예술인 연대) △예술로 더하기(창작지 공연 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원 예술기획캠프) △예술로 창작(그룹 창작활동) △예술로 표현(전시, 공연)이 라는 주제로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사업에 참여한 청년예술인들은 오는 11월까지 그룹별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비한 그룹별 창작활동의 성과를 전시와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예술 인들의 폭 넓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기 대하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성장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는 대한 민국 문화도시답게 예술인들이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채병영 전주시의원 산불방지 등 근거 마련



전주시내 산불방 지 및 산림보호를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전주시의회

에 따르면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이 대표로 발의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 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 혔다.

해당 조례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 련됐다.

조례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실행 계 획 수립과 감시·단속, 조사·연구, 협력 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산 불 예방 활동, 물품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 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신용회복委, '전주 함께 복지' 동참

1천만원 상당 물품 기탁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지역본부장 강원석)가 전주시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예 방을 위한 '전주 함께 복지'에 동참 키로 했다.

전주시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 전라제주 지역본부는 19일 전주시 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원 석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함께 복지 사업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광 주전라제주 지역본부는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 함께라면·함께라떼 운영 공간 8개 기관의 저소득 취약계층 등 주민 공유공간 운영을 위한 라면과 커 피, 양수냄비, 라면용기 등 총 1000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강원석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 라제주 지역본부장은 "전주함께라 면에 동참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 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기구로서 채무조정 및 복 합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을 돕기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지 역 내 고립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 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형 위기 고립가구 발굴 사업 운영에 관심 과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 린다"면서 "지역 내 이웃의 어려움 을 함께 찾고 돌볼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맛배달 활성화…소비쿠폰 지급

전주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맛배달 이용자 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민 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경영 부담 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외식 소비 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기를 회 복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전주 맛배달'에서 2만 원 이상(음식값과 배 달료 합산액) 3회 배달 또는 포장 주 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 만 원 소비쿠폰이 자동 지급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일~19일 주문 건도 소급해 실적으로 적용되며, 일별 주문 건수 제한은 없으나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 쿠폰은 매월 1인 당 1장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쿠폰 은 2만 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전주시는 소비쿠폰 행사와 함 께 자체 할인 이벤트를 병행하고, 홍 보를 추진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주맛배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 선착순 500 명 대상으로 2000원 주간 할인 혜택 과 매월 선착순 1000명 대상 3000원 첫 가입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맛배달은 시민과 소상공인 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소비 플 랫폼으로, 가맹점에게는 중개수수료 0원과 가입비 0원, 광고비 0원의 '3 無 정책'을 시행해 수수료 부담을 덜 어준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맛배달 공식 블로그(blog.naver. com/jj_ord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고객센터(1899-1010) 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 올림픽 유치지원위 출범 안전확인 총력

국제 규모 안전역량 계획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전 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지원위원 회 출범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고의 안전확인에 돌입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라 북도의 첫 공식 행보로 오는 6월 23 일 전주시 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 서 열린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국제 규모의 안 전역량을 보여줄 기회로 보고 모든 단계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대응을 준비해 왔다.

앞서 소방서는 지난 17일 화재안전 조사반을 투입해 행사장 내 소방시설 과 피난통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안

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소한 위험요소도 사전 에 제거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이 가 능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산악구조차, 펌프차, 구급차를 포함한 차량 3대와 소방대원 10명이 행사장에 전진 배치되며, 대응총괄팀 장의 지휘 아래 실시간 상황을 관리 할 계획이다.

정준모 대응총괄팀장은 "올림픽 유 치는 도시의 품격과 역량을 종합적으 로 평가받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안 전'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며 "전 주덕진소방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 는 도시,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4

전기안전公, '사람 중심' AI 윤리원칙 제정

공공 AI '10대 윤리' 발표 AI 활용 윤리기준 선제 대응 생성형 AI 공공책임 강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인 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기 가치를 담았다. 술 활용 윤리 기준 마련을 위해 'AI 윤리 원칙'을 제정했다.

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 면서 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 위 험 예방과 신뢰성 확보가 사회 주요 이 슈로 대두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의 일

존엄성 \triangle 공공성 \triangle 다양성 존중 \triangle 투명 성 △데이터 관리 △신뢰성 및 개인정 보보호 △인간의 감독 △안전성 △윤리 적 활용 △협력 및 연대성 등 10대 핵심

10대 핵심가치는 UNESCO와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준과 연구결과를 바 최근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탕으로 마련됐으며, 이는 공사의 경영 이념인 '사람존중 열린경영'을 실현하는 새 윤리원칙이자 디지털 체계 구축의 길잡이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인공지능 기술을 혔다.

활용한 AI 사원 '이바름(e-바름)' 프로그 이번에 제정된 AI 윤리원칙은 △인간 램을 개발해 감사업무를 비롯한 예산· 노무·인사 관리 등 분야의 업무 효율성 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 아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윤경ESG포럼에서 '윤리경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공 공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신뢰 성"이라며 "AI 윤리원칙 제정을 시작으 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기안전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 /김영태 기자

KESCO	
O	인간의 프랑정 문항 인간의 프랑정 문항
0	공공성 +40 1911 1250 1250 581 181 181 01 1914 118 + 124 4150.
0	다양성 준무 전도 IPC 5억분 전도 5억 시즌 5억호 기상을 보고하면 전다.
a	はないか いいほの (18 Act 19 pl 12 15 l 16 J 19 Act 1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다이트 관리 하는 가지 하는
0	신뢰성 및 개인정보보호 ESP는 NOT 48NS IS PTNS ERR F NS, ESPTN SER ERPTOF EU.
Q	인간의 강복 및 결정 800 001% 60 0000 001 80 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	한민생 28 26 19 22 4 기구가 10 8 4개도 + 10 16 2 1917 2 5시기 21.
0	윤리학안 개발 및 활용 이전 우리가 없다 보건은 건강자는 이용에는 전 대도 전로도 있는데 가게 되었다고 이용적이었다.
0	합의과 현대성
	4 € E=0700084

전북농기원 "장마철 인삼 병해충 최소화 포장관리 철저해야"

배수 정비 및 병해방제 필요 20~21일 강한 비 집중 가능성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 준열)은 장마철 침수 피해와 병해 확산 으로 인한 인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인삼 장마철 포장관리 요령'을 마련 하고, 재배 농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유출을 방지할 것, 해가림망은 팽팽하게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밤부터 중부 내 륙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올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21일에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 수 준의 강한 강수가 예상된다.

장마철에는 침수, 도복, 토사 매몰 등 다. 으로 인해 인삼 생육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특히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포장 에서는 뿌리 부패, 줄기 신장 억제, 조기 낙엽 등이 발생해 수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과습한 환경 은 탄저병, 점무늬병 등 병해 발생을 증 가시키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장마철 피해 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배수로 를 정비하고 두둑을 높게 유지할 것, 경 사지 포장에는 고랑 피복을 통해 토사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침수 발생 시에는 양수기를 활 용한 신속한 배수와 잎에 묻은 앙금 제 거를 실시하고, 침수 시간이 6시간 이상 경과한 포장에 대해서는 뿌리 상태를 확인해 조기 수확 여부를 판단해야 한

아울러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해 탄저병 과 점무늬병에 대한 예방 방제도 철저 히 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 포장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북농업기술원은 장마철 침수 피해와 병해확산으로 인한 인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전북농기원> '인삼 장마철 포장관리 요령'을 마련했다.

소 김주희 소장은 "장마철에는 침수 피 해와 병해 확산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혔다.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

/정재근 기자

복숭아 첫 수확은 작년보다 5~7일 늦은 이달 중순부터 조생종 홍비금·설원 품종 으로 시작해 생산되고 있다.

참 맛있는 복숭아, 출하 준비에 분주한 농촌

농촌은 지금

품으로 귀중한 농산물 중에 하나이 높다 다. 중국에서는 장수와 번영을 상징 하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 전북은 전주에서 100여년 전에 재배가 시 작되었고 지금은 임실, 남원 등이 대 표적인 주산지로 자래 매김을 하고 있다.

으나 기후적으로 햇볕이 잘들고 충 분한 수분 공급이 가능해 복숭아 생 육에 적지로써 향이 좋고 식감도 좋 을 뿐만아니라 색택이 뛰어나 브랜 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복숭아 산업 육성 을 위해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했고, 후발 주자인 전북도는 신규 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품종을 도입 지역의 대표적인 중만생종과 차별 화가 가능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수입 과일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도 아열대과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복숭아는 저장 기간이 짧고 아직까 지는 수입에 한계가 있어 타 작목에 복숭아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진상 비해 농촌의 소득작물로써 가치가

> 첫 수확은 작년보다 5~7일 늦은 6 월 중순부터 조생종 홍비금, 설원 품 종으로 시작해 7~8월 중만생종 황 도·백도, 9월~10월초 만생종 백도 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이 기간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록,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수세 관리, 수 분관리, 적기수확 등 세심한 관리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숭아를 고를 때에는 크고, 무거우며, 색택이 선명한 것을 선택해야 맛있는 과일을 만나볼수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전북 은 면적은 적으나 토양과 생육에 좋 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어 과실의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타 품질에서 우위에 있다"며 "지금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상품의 엄밀한 선 별과 수확기에 있는 과실은 더 세밀 한 관리를 통해 전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공=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전북자치도, 장마 앞두고 부안 침수 재해지 현장점검

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참여 구조적 보완 관리 대책 주문

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안 다. 전 점검에 나섰다.

가 발생했던 부안군 일대 농작물 재배 에서는 제방 안정성과 배수 여건 등도 지와 배수시설,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6 중점 점검했다. 월 19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를 직접 둘러보고, 해당 지역의 배수로 고 당부했다.

와 펌프장, 제수문 가동 현황을 꼼꼼히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서는 우수박스 준설 및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가 장마철 침수 피해 의 침수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는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 보안면 묘동제(용도폐지 예정 저수지)

오택림 실장은 현장에서 "장마철 재해 이번 점검은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 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취약지 와 인명 안전실장을 비롯해 부안군청, 한국농어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대 촌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진행 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조치되고 유기적 점검단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행안 으로 움직일 수있도록 부안군, 농어촌공 면 호남장례식장 인근 논과 콩 재배지 사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달라"



전북도는 지난 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부안군 일대 농작물 재배지와 배 수시설,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6월 19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도>

농진청,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나서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 다. 은 오 실장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구

이와 함께 부안군 관계자로부터 복구 조적 보완과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했

/김영태 기자

LX, 국토교통기술교류회서 국토기술 성과 공유

코엑스서 19·20일 개최 음성기반 경로찿기기술 등 첫선

원(이하 KAIA)이 총괄하는 디지털국토 정보기술개발사업단은 19일부터 20일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 참가해 디지털 국토를 위한 최신 공간정보 기 털 국토정보 활용'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술을 선보였다.

번 행사를 통해 △실내·외 연속측위 현 제시했다. 장시연 △정사영상 변화탐지 △음성기 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성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세대학교,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등 산·학·연의 협업을 통 해 발전됐기에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기술 중 비공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정보를 공간정보화 하는 '위치정보 자 동부여기술'은 디지털 국토를 실현할

또 19일에는 국토교통부, KAIA 등 국 토교통분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디지 연구성과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을 실시 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사업단은 이 하고 국토의 미래 발전방향과 방향성도

국토교통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분야 반 주요시설 경로찾기 ΔCCTV 이동객 우수 연구성과 홍보를 통해 국토교통 체 감지시스템 등 '국토교통기술의 무 R&D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 한한 가능성을 열다'라는 슬로건에 맞 이고 미래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토교통기술대전과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보급누에씨 현장행정

부안 변산서 생산기반 점검 우량 보급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준열)은 19일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 원에서 보급누에씨 생산 실태 점검과 씨 생산시설 시찰 등을 순차적으로 진 와 공동으로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양잠농가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행했다. 행정을 실시했다.

누에씨 1,000상자를 생산해 봄과 가을, 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최준열 농업기술원장 소"라고 밝혔다. 을 비롯해 농촌지원국장, 종자사업소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국가중요농 업유산 제8호로 지정된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에 현존하는 전통 잠실 중 '장성댁 잠실'에서 누에 뽕잎주기 일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 돕기를 진행했다. 이어 분장농가 사육시 설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누에

이번 현장행정은 도내 양잠농가에 안 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혈당 조절, 면역 정적으로 보급누에씨를 공급하기 위한 력 증진 등 건강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생산기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생누에, 건조누에, 홍잠 등 다양한 형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실무작업반(TF)을 조직하고, 인수공통 따라 양잠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전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농기원 잠사곤충시험장은 매년 있으며, 안정적인 누에씨 공급 기반 구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은 "보급누에씨 교육·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중요한 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도내 양잠 농가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 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정재근 기자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관리하는 인

농촌감염병 예방 가이드 배포 백신 없어 개인 예방 필수

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국대학교 예방 가이드'(이하 안내자료)를 제작해 최근 누에는 고단백·저지방 식품 원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 부 기관, 유관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로 안전365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관과 인체감염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고 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상용화된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료한다.

수공통감염병은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 분야에서 주의해 야 할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 루엔자 인체감염증)이다.

안내자료는 동영상, 소책자, 강의 교안 형태로 만들었으며, '농작업 안전재해예 방 교육'과 농업·농촌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와 농업인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 백신이 없다. 따라서 작업자 스스로 개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 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해 치

/김영태 기자



LX전북지역본부 권역별 윤리경영교육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전북지 회차에 걸쳐 관내 권역별 윤리경영 대 역본부(본부장 박춘수)가 본부 직원들 면교육을 추진했다. 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대면교육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삼일동안 실 시하며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힘을 실었다.

윤리경영 대면교육은 바람직한 윤리 로 진행됐다. 문화를 조성하고 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LX 본 사·부속기관·지역본부 단위로 매해 시 _ 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행되는 행사이다.

LX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이번달 총 3 다"고 말했다.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윤리경영 대면교육은 LX 임원 초청 '윤 리경영특강'을 비롯해 △4대폭력 예방 교육 △청렴교육 △갑질예방교육 순서

박춘수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되돌아보고, 청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식 출범

장애인식개선공연등 12월 창단 공연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 스트라가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학생교육문 화관 예능관에서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오 케스트라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장애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 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강동화 의원, 단원 및 보호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 을 축하했다. 특히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한 달여간 연습한 곡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에서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개소 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선사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성인 장

을 직접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 트 1명 △피아노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도내 학교 및 공 애인들로 Δ 바이올린 3명 Δ 비올라 1 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인

식 개선 공연' 등을 적극 운영하고, 창 단 공연은 12월 중 가질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오케스트라의 공식 출범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정 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을 매 개로 한 포용적 교육 문화 확산의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장애 인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예술 활동 을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 여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도 감 동과 울림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음악 을 전해주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 술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의 장애 인 식 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AIDT 해외연수' 선발 기준 논란

전조교 "보낼 사람 정해둔 연수" 교육청 "해외연수 규정 완화" 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AIDT 해외연수'가 특혜 선발이라는 의 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역량강화 해 외연수'는 명목보다 대상자에 초점이 맞 춰졌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교조 단체협약 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 해외연수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이번 연수는 신청 미달을 이유로 '2년 이내 미연수자'까지 포함시켰다"며 "통 상 다른 연수는 미달 시 5년 기준을 적 용하는데 이를 2년으로 줄인 것은 누군 가를 보내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선정 기준도 맞춤형이다.

AIDT 연수강사, 현장지원단 참여, 선도 교사 연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 며, 기준 점수는 60점이다"며 "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조 차 불가능한데 올해 신설된 AIDT 현장 지원단은 35명에 불과하지만 배점은 무 려 30점으로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명확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 관 계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외연수가 추진되지 못했다"며 "공백의 시간이 있 어 해외연수 대상자가 나오지 않게 될 수 있어 자체 규정을 마련해 대상자 선 발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교사 선정 기준에 대해 "AIDT에 관련된 실적들이 있어야만 서 류 접수가 가능하고, AIDT 현장지원단 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해 석과 취지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최성민 기자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원화전시 29일까지 '계속된다!'

팔복예술공장·완산도서관

전주시는 백희나·사라 룬드베리·에바 린드스트룀·키티 크라우더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원화전 시가 오는 29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 산도서관에서 계속된다고 19일 밝혔다.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는 백희 나 작가와 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작품 을 만날 수 있으며, 완산도서관 전시실 (완산마루)에서는 에바 린드스트룀 작 가와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작품을 감 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전시장에서는 '그림책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지역 활동가들이 매일



3~4회 전시 도슨트를 운영하며 방문객 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전북특 별자치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단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전주시 3개 특 성화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이 전하는 마 법 같은 이야기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우만·김유진·서현 작가의 강연

이 이어진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도서전은 그림책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원화전시에 참여해 그림 책이 지닌 마법 같은 매력을 직접 느끼 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본행사에는 원화전시 작가를 직 접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콘퍼런스와 강 연, 워크숍, 전국 대표 그림책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 원화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3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정재근 기자

전북대 '생체재료 연구실', 기술이전 우수실험실 선정

전북대학교 박찬희 교수팀이 운영 다. 하는 '생체재료 및 메카노바이오로지 Technology Transfer Lab. Award)'에 선 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창의적 기술자산을 실용화하고, 우수 연 해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실 기반의 'Lab to Market'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3.0)' 및

오로지 연구실'이 의료기기 개발 전문기 의 연계 아래 이뤄진 우수 사례로도 주 업 ㈜아이메디텍과 체결한 중·대형 기 목받고 있다. 술이전 계약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

해당 연구실은 전기방사시스템을 활 연구실'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 용한 나노섬유 기반 인공도관 및 신경도 장 손정민)이 지정하는 '기술이전 우 관등 첨단 바이오소재 기술을 이전하며 수 실험실(JBNU ETLA: Excellence in 국내 의료소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분야에서 국내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 독립 가능성을 확보한 점, 그리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후속 제품 개발까 구자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 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기 술적 파급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성과는 전북대 산학협 력단이 수행 중인 교육부 '대학 창의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 기술개 이번 선정은 '생체재료 및 메카노바이 발(R&D) 사업' 등 주요 국가 연구사업과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어린이집 학습공동체 20팀 선정

보육교사교육현장경험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 석)은 보육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어린이집 학습공동체 20팀을 실화를 다져나간다. 선정,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관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집 학습공동 놀이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 체는 보육교사들이 교육 현장 경험을 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공동 공유하며 상호 나눔을 통해 교육과정 체를 운영하게 된다. 실행역량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보육교사들이 배움과 나눔을 통해 영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적용하고, 유 보통합의 핵심과제인 상향평준화를 위 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

선정된 팀은 자연사랑 환경 사랑, 인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청 성·인권교육, 유·보 이음교육, 유아 책

/최성민 기자

우석대,11년 연속'대학운동부평가·지원사업'선정

5800만원지원금확보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스포츠단 를 보였다. 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 관하는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비 약 19% 감소(2024년 61억 원→2025 에 11년 연속 선정됐다.

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확보했다. 있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

운영관리 △훈련지원 △성적 △사회적 책무 등 4개 평가영역에서 우수한 성과

특히 올해 전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 년 49억 4000만 원)하고, 선정대학 수 이 사업은 전국 대학 운동부의 실적 는 증가(124개교→130개교)했음에도 을 평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 불구하고, 우석대학교는 전국대학 중 며,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 상당한 규모인 5800만 원의 지원금을

/최성민 기자

건강한 여름나기

물 자주 마시기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영상회의 개최…추진상황 점검

군산시가 강임준 시장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등 영상회의 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는 자연 재난 대응·담당 14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했다. 회의는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건설과, 농 업정책과 순으로 추진사항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작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현황도 꼼꼼하게 살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회의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군산시가 재난 청정구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 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며 10건이 넘는 질 의를 통해 각 부서의 물 샐 틈 없는 대비 태 세를 주문했다.

또 △피해 신고 접수 시 담당 부서 즉각 응답,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 초 부서 적 협력, △신속한 피해종합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군산시의 모든 부 서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으며, 각 읍면동에도 한 건의 피해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 조 사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을 부탁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중대산업재해 대비 다중이용시설 실전훈련 실시

정읍시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 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정읍트레이닝센터와 서 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두 곳에서 비 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과가 주관하고 시설운영과와 자 원순환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정읍소방서 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훈련은 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다중이용 사업장을 선정해 화재, 스키드로더 충돌 등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 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전북 중장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익산시는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센터장 이효선)와 19일 익산비즈니스센터 에서 '2025 전북 중장년 창업 아이디어 경 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험에 날개를, 창업에 희망 을, 전북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라는 기치 를 걸고 열렸으며, 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 을 가진 중장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자를 발굴·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1개 팀은 이날 본선 무대에 올라 아이디어에 대한 열띤 발 표를 펼쳤다. 이어 외부 전문가 4인으로 이 뤄진 심사단이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차 별성 △기술 실현 가능성 △시장성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 다. 심사 결과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 상 4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외국인 비자 전환 문턱 낮춘다

숙련기능인력비자전환설명회

군산시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지 역 정착과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도모 하고자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 환 설명회'를 19일 군산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 산시가 공동 주관했으며, 외국인 근로 자를 고용 중인 3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는 숙련기능인력 점 수제 비자 전환 제도 설명,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현장 상담(컨설팅) 등으 로 진행됐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가 거주기간, 연봉,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총 200점 이 상 얻을 경우 전환할 수 있는 점수제 비 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 2년씩 계속 연장해 체류할 수 있으 며, 본국으로 출국해 비자를 연장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여기에 가족 동 반 초청 및 체류까지 가능해져 산업인 력 인력난 해소와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



군산시가 19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군산시>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 유 도 등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 추천제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을 통 특히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내 최 해 전환 점수 30점이 가점되며,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전환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도 록 지원도 하고 있다.

시 역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후 3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군산사랑상품권 30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업계 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정착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 당관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 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j97@ jbba.kr, bh91@jbb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 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군산시 인 구대응담당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KBS 예능으로 만나는 익산 백제

'특급공무원 시즌2' 오는 20일, 27일 방영

익산시가 예능을 통해 백제의 수 도이자 근대문화 도시로서의 매력 을 전국에 알린다.

익산시는 특집 예능 '특급공무원 시즌2'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7 시 40분에 전주 KBS 1TV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즌2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시즌1에 이어 제작된 것으 로, 오는 8월 전국 방영도 예정돼 익산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넓게 전달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방송인 김대호와 가 수 예린이 출연하며, 관광을 넘어 유산을 공감하고 해석하는 역사 테 마 중심의 예능을 선보인다.

출연자들은 '특급공무원'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익산의 세계유산 을 탐방하고 체험하며, 문화유산과 감성예능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예능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출연자들은 "우리가 걷는 이 거 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시간이고, 이 도시의 역사"라며 "기억을 품은 도시라는 말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수성1 임대주택 총 200세대 7월 7일~31일까지 신청

정읍시 수성1 영구임대주택이 새 단 장을 마치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주를 본격화한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성 1 영구임대주택 921세대의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8세대의 예

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200세대를 대상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 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층이다.

공급 주택형은 36.54㎡(11평형)이며,

비입주자를 선정했고, 현재 입주가 순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31 일까지다.

>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앞바다에 어린 갑오징어 종자 방류

1억5천만원투입 17만여마리

군산시가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 성 2년 차 사업의 하나로 19일 비안・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갑오징어는 17만여 마리로 종자 크기는 전장 1cm 정도이다. 시는 1억 5,000만 원의 방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연안에서 건강한 어미 암수를 교배하여 4~5월 채란 후 육상에서 부화시켰다. 방류 전 전염병 검사도 마쳤다.

체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들의 큰 소득 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수산물 가치를 올리기 위한 브랜드화도 목표로 하고

과거와 달리 관내 해역에서 갑오징 방축·연도 해역에 어린 갑오징어를 방 어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되고 있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이다. 이 중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는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조성, 자연석 시설, 종자 방류 및 효과조사 방류한 어린 갑오징어가 건강한 성 등이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이 소요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형 스마트도시 실현···화재감지·스마트정류장

연지동 박병원 잔다리목 일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정읍시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 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 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에 선정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하고 있다.



연결되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우선 지난 2월, 연지시장 일원 상가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주목할 만하 로기대된다. 200곳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초기 화 다. 노후 정류장을 철거하고, 냉난방기

재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내 중 와 온열벤치, 공기청정기, 버스도착 안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기 심지인 연지동과 수성동의 취약지역에 내 단말기를 갖춘 최신 정류장이 연지 설치 \triangle 가로등 비상벨 설치 \triangle 스마트 는 총 39곳에 가로등 비상벨을 설치해 동 박병원과 잔다리목 일원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 위급 상황 시 경찰서 112상황실과 즉시 다. 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신뢰감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농식품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40개 업체 현장 점검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나섰다.

2024년까지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보 조금을 지원받은 40개 업체를 대상으 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여부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물과 시설은 10 정읍시가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한 년, 기계와 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 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시는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 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있 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2015년부터 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발 견될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시작

금융 법률 복지 연계 통합 자립 기반 마련·사례관리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 을 돕고자 금융·법률·복지를 연계한 다. 현장 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이 익산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다고 19일 밝혔 다. 이날 상담은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 의체(공동위원장 성시종·정헌율) 통합 사례분과와 익산시가족센터가 협력해

진행됐다.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일시적 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사 지원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마 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련하고자 통합 상담 서비스를 기획했

익산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찾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해당 기 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이어 관의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복 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 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운영을 시작으로 통합사례 통합사례분과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 분과 소속 사회복지기관들은 부송종합 상당수가 지출 관리 미숙 또는 금융·법 사회복지관(동부권), 동산사회복지관

률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계부채 (남부권),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등으

성시종 민간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은 복합적인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을 지원하고, 시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 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찾아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 가는 금융복지 상담을 마련했다"며 "앞 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 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로'…웰니스 한방 투어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 표이사 김세만)과 함께 '금마저 익산 된 황수연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4남 백제마을 웰니스 한방 투어'를 운영한 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기획 함께 진행한다. 된 '웰니스 한방 프로그램'으로 △역사 한방 △자연·치유 한방 △전통문화 한 는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를 대 방 △건강 한방이라는 주제로 구성됐 상으로, 2회(6월 27~28일)는 여행사 다. 역사문화자원과 한방의학, 향토식 및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 문화 체험이 융합된 체험형 관광코스 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체험 로, 익산 고유의 문화 정체성과 웰니스 후 익산 웰니스 관광지를 알리는 서포 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터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행은 웅포 곰개나루 금강 유람선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방 체험으로 시작해 입점리고분 전시관 힐링 자원을 결합한 여행을 선보이며 에서 백제 유적을 관람하고, 익산 특산 지역 고유의 치유형 체류 관광 콘텐츠 물인 참마와 서동전설을 활용한 마약 밥 체험으로 이어진다.

이어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 매 시골된장에서 발효식품을 직접 만 들고, 왕궁리 유적에서는 유네스코 세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유네스코 계유산을 배경으로 천연염색 체험도

이번 프로그램은 1회(6월 20~21일)

/익산=최준호 기자

소~덕정마음 문개설 기념식

생활 밀착 도로 인프라 개선

읍 보건소에서 덕정마을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인도개설공사를

사업은 2024년 12월16일 착공해

총연장 800m, 폭 1.5~2.0m의 보행

자 전용도로와 안전시설물을 포함

비롯한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

을 적극 반영해 추진된 본 사업의

완공을 함께 축하하고, 향후 안전

한 보행환경 조성의 의지를 다지

으며, 고창읍 보건소를 자주 찾는

어르신 아동 등 보행 약자들의 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도시

고창군)가 19일 오후 충북 보은군 법

회의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함

안군수, 고성군수 등 31개 회원도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협의회로 회원도시간의 공동사업연

성덕면 남포리 신규 지정

치매 예방·관리 사업 본격화

는 19일, 성덕면 남포리에서 '제4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전달식을 개최했

다고 밝혔다.

산을 보유한 31개 지자체로 구성된 라고 전했다.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논의했다.

최했다.

보행약자통행권확보

완료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사업으로 추진됐다.

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읍 보건소-덕정마을 구간 인도개설

고창군이 지난 18일 오후 고창 아 위험했던 구간이었는데, 이제

한 생활 밀착형 도로 인프라 개선 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걷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의 의견 개설은 단순한 길 하나를 넘어서

공사는 계획대로 무사히 준공됐 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공동사업 4건 확정

주사 일원에서 제30차 정기회의를 개 등재돼 일찍부터 협의회의 회원으로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산정 관 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손활용 계자가 참석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해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공동

세계유산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 으로 연구하고 정부와 함께 소통하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 협의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 바란다"

김제시, 제4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전달

겠다"고 밝혔다.

활동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한 통행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주민들도 "평소 차량 통행이 잦

는 아이들과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의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도

시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

기 좋은 고창, 안전한 고창' 실현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인도

군민의 일상 안전과 생활 편의 향

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

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 불편을 놓치지 않고, 사람 중심

구와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 창립됐

다. 고창군은 고인돌유적지와 갯벌이

이날 회의에서 한국 세계유산 공동

사업 추진 등 총 4건의 사업이 확정

돼, 하반기부터 유소년 한국세계유산

탐험대운영, 세계유산 정책연구회 운

영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세계유산

다"며 "한국 세계유산의 미래에 대한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원전 황산누출 고창 '불안'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 사고발생 안전성 의문 노후 1·2호기불안감커져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누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창 지역사 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께 영광 소재 한빛원전 2 터 한빛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호기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 생했다. 이 사고로 황산 1910가 누출됐 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전 내 유해화학물질 누설 소식으로 고창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이다.

특히 원전측이 밝힌 "황산주입펌프 연결볼트 손상"은 한빛원전 2호기의 심각한 노후 상태를 증명하고 있다.

한빛원전 2호기는 1987년 6월에 운 전을 시작해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공청회가 연기되고 파행되는 진통을 겪었고, 지 역 정치권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창군은 전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30km)내에 포함돼 있으며, 풍향과

근본적인 의문과 불안이 커지는 상황 해류의 영향으로 방사능 및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 이에 더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 지 못하는 재정적 불평등에 이번 사고 는 군민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 로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 강화뿐 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전체를 고려한 안 전과 피해지원 등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위험 공유하되 지원은 단절된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일제강점기 시각 기록물 최초 발견

'대합소' 희귀 사진 엽서 생활사 자료 연구 가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최근 기 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록물 공개 구입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김제역 대합소의 전경을 담은 희귀 사진 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근대 김제 지 역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였던 김제역 의 모습과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시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해당 사진은 일제강점기인 1920~30 년대경으로 추정되며, '철도대합소'라 는 간판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또한 당시 포드 T형 자동차, 한복을 입은 인물들 등이 함께 포착돼 있어, 근 대 문물이 혼재된 김제시의 모습이 고 스란히 담겨 있다.

풍경을 넘어서, 김제가 쌀과 농산물 집 산지로서 조선총독부의 수탈 경제 체



김제시는 19일 최근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록물 공개 구입에서 일제강점 기 시절 김제역 대합소의 전경을 담은 희귀 사진 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 속에서 어떤 교통·상업적 위치에 있 가된다.

특히 철도 및 대합소의 기능뿐만 아 니라, 김제 시민들의 삶과 거리 풍경까 이번 사진 자료는 단순한 기차역의 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화사 생활사 자료로서도 매우 높은 연구 가 치를 지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의 발견은 김 었는지를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로 평 제의 근대 교통사와 철도문화의 모습 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밝혔다.

> 한편, 시는 해당 기록물을 하반기에 개최하는 기록물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

> >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청년 '행복UP클래스' 만족도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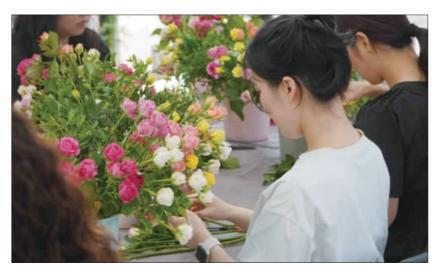
청년맞춤형구성호응 내일까지 7월 참여자 모집

부안군이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 해 운영 중인 부안청년UP센터 행복 UP클래스가 청년 맞춤형 강의 구성과 높은 참여율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 다.

2025년 행복UP클래스는 12명의 청년 강사가 기획·운영하는 총 50회 강의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개강해 6월 현재까 지 35회의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약 300명의 청년이 다양한 문화 강좌에 참 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퍼스널컬러 진단', '천연화장품 만들기', '라탄 공예' 등 청년 들의 취향을 반영한 인기 강좌 16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약 160명의 청년이 참 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부안청년UP센터 인스타



그램 및 '부안청년톡' 포스트를 통해 가

행복UP클래스는 청년 강사가 직접 기 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획한 강의를 또래 청년에게 전달함으로 써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군의 대 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표 청년 정책 프로그램이다.

마무리되는 대로 청년 수요를 반영해 신 규 프로그램을 준비해 연속성과 다양성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청 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는 7월까지

매인식도 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신규로 지정됐으 /부안=신상수 기자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게 됐다.

시는 그간 치매안심마을을 모범적 나가겠다"고 전했다.

난 2월 제3호 치매안심마을인 요촌 동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승인됐 으며, 신풍동과 검산동 치매안심마 김제시(시장 정성주)치매안심센터 을 역시 지난해 12월 우수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시는 '기억충전 행복만땅' 치 매예방교실을 총 42회에 걸쳐 553명 성덕면 남포리 치매안심마을은 지 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등 꾸준한 치 난 5월부터 지역 자원 조사, 사전 치 매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존 치매안 심마을의 우수 운영 경험을 바탕으 며, 이번 현판전달식을 계기로 치매 로, 성덕면 또한 치매에 안전하고 따 뜻한 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주민 협력을 지속해

/김제=온봉기 기자

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양파 수확 일손돕기

영농철을 맞아 지난 18일 부안군 상 파 수확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일손돕기는 적기 수확 지원을 통해 고말했다. 농작물 품질 유지 및 농가 소득 안정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농촌 서면 소재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양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에서 공공기관의 작은 참여가 농가에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외국인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농번기 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와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이어가겠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생애사글쓰기 '나의삶,한권의책' 참여자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군민과 함 께 삶을 되짚고 글로 엮어보는 시간 2025 생애사 글쓰기 '나의 삶, 한 권의 책'(이하 생애사 글쓰기)'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 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진행된다.

생애사 글쓰기는 삶의 단편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되는 이 과정으로 단순한 글쓰기 를 넘어 자기 이해와 정서적 치유의 여정이 자 예술로 풀어내는 자서전 쓰기라 할 수 있다.

참여자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 며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의는 글마음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가 맡아 문학적 깊이와 감성을 더한 지도를 통 해 참가자들이 자기만의 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선착순 접수 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재단 지역문화팀 으로 전화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글을 쓴다는 건 결국 자 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군민들의 마 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민관합동 밀폐공간 작업 안전 훈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복죽동 에 위치한 김제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밀폐공 간 작업 안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수도사업소 직원 7명과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직원 8명이 함께 참 석해 진행됐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인 해 질식,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장 소로 공공하수처리장의 맨홀 내부, 펌프장 내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위험장소에서 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사에서는 반 기 1회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 훈련은 △밀폐공간에 대한 이 해 △밀폐공간 작업 시 기본 절차 교육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시나리 오를 활용한 가상 상황 훈련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보고 방법 교육 등으로 진 행됐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안전훈련을 통해 밀폐공간에서의 사고는 사망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속 적인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작업 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 채용연계 기업체 구인구직 업무협약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관 내 구인기업들과 '채용연계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센터는 관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 로 구직자와의 맞춤형 채용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관내 기업체 10여 개소가 참석했다. 채용연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구인·구직자 발굴 협조, 일자리 정책 정보 공유, 고용 관련 네트워크 확대 등 지 역 일자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다각적 전 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고창군로컬JOB센터는 단순한 일자 리 연결을 넘어, 기업과 구직자가 상호 성 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양치영 고창군로컬JOB센터장은 "이번 채 용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인재 확보, 구직자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얻게 돼 지역 내 고용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고용서 비스 제공 및 채용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오늘 제1회 김제시 장애학생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 활동 확대 7개교 1백명 참석

김제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성주) 는 오는 20일 김제시장애인체육관에 서 제1회 김제시 장애학생 체육대회 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의 소통과 화합을 바라는 관내 특수학 급 학교들과 김제시장애인체육회의 랑 시간이 준비돼 있어 볼거리와 즐길

규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7개교(농생명마 이스터고, 김제여고, 한들중, 김제중, 중앙중, 봉남중, 용지중) 특수학급 장 애인과 그 가족, 담당 교사 등 100여명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의미 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주요 내용은 △피구 △줄다리 생들이 체육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이 대회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기 스릴레이 달리기 스꼬리잡기를 포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활동의 장을 함한 총 4개의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량과 끼를 내뿜을 수 있는 △장기자 말했다.

열정과 바람이 한데 모여 추진되는 신 거리를 마련해 흥겨운 분위기가 펼쳐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관내 장애학생들의 건 강 증진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상호 가 크다"며, "앞으로도 많은 장애 학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중견기업 잇는다

'소중한 인연 프로젝트' 추진 60여개 소상공인 기업 참여 로컬제품 소비・판로 정기 지원

완주군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완주경제 소(소 상공인)·중(중견기업)한 인연 프로젝 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19일 완주군은 60여 개소의 소상공 인 대표와 기업 및 단체 간 협약식을 갖고, 완주군 로컬 제품의 정기적 소비 와 판로 지원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완주산단진흥회, 전북금형 속 가능한 소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목표다.

협회, 뉴텍, 대주코레스, 알에프세미 등 중견기업과 단체가 참여했으며, 향후 완주 소상공인의 제품을 적극 활용하 기로 했다.

소상공인으로는 숲쟁이협동조합, 한 승목장, 봉상생강조합, 한스팜, 참살이 트 1탄'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 모악골 등 완주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했다.

> 완주경제센터 주관으로 추진된 '완 주경제 소·중한 인연 프로젝트'는 관내 의 차별화된 로컬 제품을 기업 맞춤형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및 단체 간 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이고 지 의 디지털 유통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간 연결 자사 복지 프로그램, 사내 행사, 명절 을 통해 함께 완주(完走)한다는 의미를 선물, 고객 기념품 등 다양한 접점에서 담은 상생협력 모델로, 단발적인 소비 캠페인을 넘어 정기적 구매 및 상호 신 뢰 기반의 거래 구조를 목표로 한다.

> 완주경제센터는 이번 프로젝트와 연 계해 '완주몰(Wanju Mall)'을 통한 온 라인 판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패

순창군, 폭염·풍수해 재난 선제 대응 나서

무더위쉼터 159곳 정비 고위험지 집중 관리 강화

순창군이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대책 회의에는 13개 협업부서장이 참석해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부서별 대응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상황과 대처계획을 논의했 다. 특히, 지난해 평균기온 25.6℃와 열 대야일수 24.5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 며 관내 온열질환자 19명이 발생한 상 황을 분석하고, 올해 대응방안을 종합 정 수위 관리 등이 보고됐다. 적으로 점검했다.



순창군이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 하기 위해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관리 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159개소 인 보호대책, 도로·저수지 안전관리, 산 정비 ▲인명피해우려지역 46개소 집중 관리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강화 ▲저수지 172개소 사전 방류를 통한 적

주요 대책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 존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정비, 취약노 했다.

사태 예방대책 등 각 부서별 전문 분야 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됐다.

최영일 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예측 가능한 재해인 만큼 철저한 사전 또한, 회의에서는 신속한 홍보와 언 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청 근대5종팀 전국대회 '맹활약'

국대 김예나 개인전 1위 김우철 2위·女단체 2위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개인전 1위를 따내는 등 맹활 약했다.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지난 13일부 터 18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 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에 참가했다.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김예나 선수는 근대4종 개인전 1위를 거머쥐었고, 김 우철 선수는 근대4종 개인전에서 2위, 김예나, 이화영, 소재영 선수는 근대4 종 여자 단체전에서 2위를 하며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다.

완주군청 근대5종 선수단은 국가대 명의 좋은 성적으로 단체전에서 메달 겠다"고 밝혔다. 을 획득하며 활약했다.

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들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문체부장관기 전국대회에 서 개인전 1,2위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사진=완주군>

표 김예나 선수를 비롯해 여자 선수 3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국 무대에서 임성택 근대5종 감독은 "선수들이 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완주군청 근 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 흘려 준비한 만큼 값진 결과를 얻어 무 대5종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

지원과 훈련을 통해 많은 대회에서도 전념하고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 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완주군은 오는 7월에 제12회 한 종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완주=김명곤기자

키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농산물, 특산품, 수공예품 등 완주군 으로 구성해 공급, 군 단위 커머스 기반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 작품 공모 시작

오는 9월 8일까지 접수 소외계층 아동권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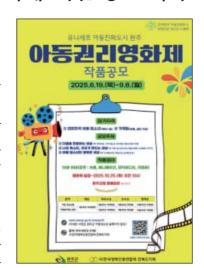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이 아동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높이고, 아동친화적 문화를 확 산하기 위해 2025년 아동친화도 시 아동권리영화제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19일 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팀의 경우 아동과 성인이 함께 참여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 소외계층의 아동권리를 조명하 는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변 화 이야기', '나의 목소리, 우리가 만드는 세상', '디지털 환경, 마음 건강, 놀이환경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영화를 제 작하면 된다.

후에 제작한 작품으로 숏폼, 애니,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뮤직비디오, 극영화 등 형식·장르 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 에 제한없이 10분 이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10월



25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열리는 아동권리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 군 아동청소년홈페이지를 참조하 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아동 권리영화제 공모전은 아동·청소 년이 직접 자신의 시선으로 권리 와 삶을 표현하고, 사회에 목소리 를 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 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출품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 완주군은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 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산사태 예방 총력 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여름철 집중호우 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빠 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대책 상황 실'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체 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산사태 예보 및 위 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대응, 24시간 비상 근무, 응급복구 체계, 주민대피 경로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상 악화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 산 사태취약지역 267개소와 산사태 대피소 10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완료하였다. 5 월 말에는 생활권 인근 6개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사전 예방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도비 등 60 억 원을 확보해 33개소에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진행 중이며, 자체적으로는 8개소에 소규모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장 최경식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 지성 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만큼 산사태 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예방단 운 영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구강보건 향상' 도지사 기관표창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 선도적 정책 추진 높은 평가

순창군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순창군은 지역 내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 강보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군은 찾아가는 구강건강교 실 운영,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지원 등 실 질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가져온 다양 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구강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표창은 군 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 으로도 모든 세대가 평생 건강한 치 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 강보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6월 9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 중심의 구 일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안전한 여름휴가' 유관기관 협력 수상 안전 가동

완주군이 여름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관 내 계곡·하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완주군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담당자 등 10여 명과 수상안전사고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

주요 내용은 완주군 수상안전관리구역 19개소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관별 대 책 마련과 협업체계구축 방안, 다슬기 채취 등 비관리지역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등이 다.

군은 고산면 6곳, 운주면 10곳, 동상면 3 곳의 수상안전관리지역을 지정·관리 중이 다.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7월 12일 부터 8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하고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안전시설 물 비치 ▲수상안전관리요원 배치 ▲물놀 이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수상안전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

유희태 완주군수는 "여름철을 맞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계곡과 하천을 찾는 만 큼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 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춘향愛톡톡' 건설업계 목소리 청취

공사예산 확대 등 논의 비수기 대책 건의사항 제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 건설업 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9일 건 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 행 추진 방식의 개선, △토목공사 예 정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 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영위원, 전문건설업체 회원 등 30여 남원시는 정부 지침과 재정 여건, 제 명이 참석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이 도적 제약 등 현실적 상황을 설명하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실질 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장을 밝혔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은 남원시의 도시 인프라를 떠받치는 뿌 리산업이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 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대화에서는 △신속집 산 확대 요청, △공사 비수기(1~2월) 간담회 개최 등 건설업계 현장의 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업계 대표, 운 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면서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정책 참여·캠페인 등 활동

순창군이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 서 제17기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된 18명의 청소년에게 최영일 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전수하 고, 위원들의 노력과 참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군의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 성된 참여기구다. 위원들은 청소년 관 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그램 운영,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연말까지 펼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소년들이 스 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을 직 접 제안하며 활동하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가치"라며,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순창군의 청소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덕과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 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폭 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덕과면장 성월계는 "폭염은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과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 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계속하겠다"라 고 밝혔다.

한편,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기상 상황 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시간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선 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건설현장 안전 강화

장마·태풍 대비 현장 점검 요천 일대 중심 집중 정비

최근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지고 태 풍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남원 시가 건설 현장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 한 사전 안전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남원시장을 비 롯해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등 지휘부와 은 강수량과 게릴라성 호우를 예보함 실무진이 함께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 에 따라, 남원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체계를 강조했다.

호우로 큰 피해를 겪었던 요천 일대를 중심으로 호안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 해 돌발적인 재해가 늘고 있어 무엇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현장 안전관 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리 실태,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세밀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히 확인했다.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 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각적인 시정조치 및 보완을 시행했다.

기상청이 6~7월 사이 평년보다 많

확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2020년 집중 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후변화로 인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우천 예보 안전상 우려 '마이돌깨비 난장' 연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오는 6월 21 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마이산 돌탑쌓기 전국대회, 마이돌 깨비 난장"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말 사이 예보된 강풍을 동 반한 우천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 과 방문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하반기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악화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돼 안타 까운 마음이 크다"며, "더욱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화창한 날씨 속에 다시 찾아 뵐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추후 진안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덕유산 의병길 걷기 1백명 동참 '태극기 서명' 호응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하 는 제11회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가 지난 19일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계곡 및 라제 통문 일원에서 개최됐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의병들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 했던 역사 현장을 걸으며 호국정신을 되 새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 1백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구천 동탐방지원센터에서 어사길 비파담까지 약 2km 구간의 덕유산 탐방로를 함께 걸 었으며, 문태서 의병대장 순국비, 강무경 의병장상을 참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광 복군 태극기 서명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 다.

학생들은 "의병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 해 활동했던 길을 걷고 또 그분들이 했던 구국 서명도 해보면서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입을 모았

무주군은 해마다 학생 및 주민들이 함께 하는 덕유산 의병길 행사를 개최해 군민 이 공감하는 역사·교육·체험의 장을 만들 어 가고 있다.

박금규 부수군정 태권문화과장은 "넉유 산 의병길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살아있는 길"이라며 "이번 행사가 참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소중 한 역사를 기억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 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자활생산품 순회장터 자활참여자 자립 도와

장수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2025년 자 활생산품 순회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터에는 전북자치도 내 7개 지역자활센 터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참여했으 며 공예품, 커피원두, 누룽지, 초코파이, 향 초, 수제비누, 반려동물 용품 등 40여 종의 자활생산품이 전시·판매됐다.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며 큰 호응을 보였고 일부 제품은 조기 완판되기도 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자활생산 품 순회장터는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자활사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매년 14 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 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자활생산품에 대 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신규 조성

판매장저장고등규모확대 유제품유통치즈기반 관광활성화기여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에 임실치즈농 협 치즈판매장이 새롭게 조성됐다.

이번에 신규 조성된 치즈판매장은 1 층 329㎡(99평), 2층 324㎡(98평), 외부 주차장 38면 등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층은 판매장, 사무실, 저온저장고 등 이 있으며, 치즈농협과 목장형유가공업 체의 유제품, 자매결연 지역인 영동군 의 와인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2층은 홍보 및 전시관으로 숙성치즈 홍보 공간, 쉼터 및 휴식 공간 등 다각 적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북특자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 을 통해 임실치즈농협에 5억원을 지원 했으며, 농협은 부지매입 등 자부담 27



억원을 투자했다.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준공은 지 역 낙농업 육성과 유제품 유통, 치즈 기 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 신규 치즈판매장 조성을 위해 군은 대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의 역사와 미

래를 함께 담은 치즈판매장이 임실치 즈 산업의 저변 확대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저지종 젖소 육성,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홍보 판매 등 임실치즈 백년대계를 이 끌 핵심 사업에도 임실치즈농협이 첨 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41회 무주 군민의 장 후보자 모집

문화체육장 산업근로장 공익장등6개분야추천

무주군이 제41회 '무주 군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7월 4일 까지 추천서와 공적조서, 추천동의 서, 기타 공적 증빙자료 등 필요 서 류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로 제출하면 된다.

'무주 군민의 장'은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 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 로, 무주군은 후보자 모집이 완료되 면 '무주군 군민의 장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장 △산업근로장 △공익장 등 각 분야 별로 1명씩을 선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장'은 교육·문화·예술· 언론 등 향토 문화와 예술, 체육 발 전에 공헌했거나 군민체육의 명예 를 대내·외에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

하며, '산업근로장'은 자기 직무 분야 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사람에 게 준다.

또한 '공익장'은 군민 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사 랑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군민에게 수여한다.

'환경장'은 환경 분야에서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며 영향을 끼친 군 민에게, '애향장'은 무주군 출신의 출향인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 에 기여한 사람을 선발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배출된 무주 군민의 장 수상자는 130명에 이른다"라며, "군민이 주 는 명예인 만큼 그 권위와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심사 또한 공 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생활인구 유입 재원 마련

장수군은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기금 최 대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관련 부서장 등 15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투자계획 주요 내용을 공 유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류됐다.

장수군은 올해 초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을 위한 전 부서 사업 발 굴을 시작으로 용역 수행, 관련 부서 협 의, 사업 발굴 보고회 등을 거치며 내실 있는 투자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6년도 중점 전략으로 "장수를 찾는 체류 인구를 정

주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설정했다.

장수군은 청년들이 장수를 찾아올 유 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 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 실현 을 통해 군 차원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 리 창출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서 투자계획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장수군 의 생활인구 유입을 비롯한 인구 활력 회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적인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촌 크리에이투어 본격 운영

5가지 여행상품 정식 운영 농촌 활력 기대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으로 추진 중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 업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임실군 농촌관광 공동협의체'임실오 실(任實五實)'을 중심으로 임실만의 매 력을 담은 5가지 체험형 여행상품을 개 발해 지난 4월 팸투어를 통해 시범 운 영을 마쳤으며, 지난수 성식 프로그램 을 선보이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실치즈마을 가족소풍'은 가족 단위 참 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해 '2025 임실 가자 14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임 방문의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 실치즈마을에서 마을 이야기가 곁들 다"고 말했다. 여진 경운기 투어와 1인1피자 만들기,

치즈요리 플래터 체험 등을 즐겼으며, 이후 성가리 벽화마을로 이동해 임실 치즈의 역사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상품인 '섬진강가실-F형 감 성여행'은 팸투어를 마치고, 이달 중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에는 섬진강을 따라 걷는 섬진강 트래킹이 포함돼 자연 속에서 감성적 힐링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농촌 크리에이 투어 사업을 통해 임실 농촌에 새로운 첫 번째 운영 상품인 '치즈맛보실-임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들에게 차별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적상·부남면 지사협 결연사업 활기

착한가게 95호점 선정 건강음료 결연사업 추진

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 고 있으며, 정기기부로 모금된 후원금 고 있다.

원장 김영우, 민간위원장 전현석)는 지 있다. 난 13일 중식당 '백리향'에 '착한가게 9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사업의 일환 으로 선정·운영하는 것으로, 매월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 UP 건강음료 결연사업'을 본격화했다. 을 위해 기부하는 가게를 말한다.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밀알이 되고 싶 노인 등 취약계층 21가구와 1:1로 결연 다"라고 밝혔다.

1계좌', '착한가정', '착한가게' 등 정기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무주군 적상면과 부남면 지역사회보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 (2016년~ 누적액 5천여만 원)은 지역

> 공위원장 강명관, 민간위원장 송영곤) 에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정서 안정을 위해 '영양

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회 백리향 이나언 대표는 "작은 나눔이 원들이 직접 대상자들을 방문해 안부 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확인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음료를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라며 "착한가게 전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독거

도 맺었다. 재원은 주민들이 자발적 기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인 부로 조성한 '반디 나눔' 모금액 2백만

주민들은 "우리 면만 해도 혼자 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면민의 12% 정도"라며,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토대가 되고 에서 건강음료 결연사업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한편,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 돌봄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민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복 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 및 청 소 등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추진에 최 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계북경로당, '전국 모범경로당' 선정

회 장수군지회 계북면분회가 (사)대한 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전 국 모범경로당'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 경로당은 19일 경로당 앞마당에서 모 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정 준수, 회원 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시간을 가졌다. 참여도 등을 고려해 전국 6만9천여 개 선정한다.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전국 모범경로당 선정은

장수군은 계북면에 위치한 대한노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계북경로당을 포함해 단 4곳만이 선정됐다.

장수군 첫 전국 모범경로당인 계북 범경로당 현판 전달식을 열고 주민 및 전국 모범경로당은 경로당 운영규 회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최훈식 군수는 "경로당은 단순한 휴 경로당 중 상위 0.1%인 단 69개소만이 식공간을 넘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립을 예방하는 가 계북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재정의 장 중요한 복지 거점이다"며 "앞으로 투명한 운영,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 도 경로당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지 역 리, 성실한 임원교육 이수 등 7개 항목 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집중호우폭염 대비 사업장 무더위쉼터 점검

진안군은 19일 '2025년 여름철 자연재 난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다.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자연 재난 발생 대 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중 심으로 안전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주요 사업장과 영농 현장을 찾았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

수준이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하고 태풍 발생 가 을 위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능성도 높아 철저한 인명피해 예방 활 동과 시설물 예찰활동이 요구되고 있 를 당부했다.

개선지구 사업현장에 대한 우기철 대 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수면 원좌마 을회관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전 자제품 등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마령면 덕천리에 위치한 노지수

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박 영농사업장을 방문해 배수시설을 점 검하고 영농사업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폭염특보 시 취약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전춘성 진안군수는 "당장 이번 주말에 이에 군은 이날 양화 자연재해위험 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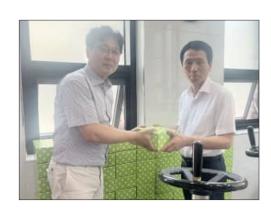
진안군, 진안천 준설사업 본격 착수

면을 줄여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이로 단한다는 계획이다. 인해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높아지 다.

이번 사업은 진안교에서 중앙교 일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이 진안읍 중심을 흐르고 있 원까지 약 1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는 진안천의 재해 예방과 하천 미관 총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개선을 위한 하천 준설 사업에 본격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여름 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 집중호우로 하천 준설은 퇴적된 토사가 통수 단 인한 범람 등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

진안군 관계자는 "신속한 준설작업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



더 생생한약방, 전주 환경관리원에 보원탕 200인분 제공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더 생생한약방(대표 원장 이홍신)이 지난 18일 한국노총 전주시청 지부에 보원탕 200인분(3,200팩, 시가 약 800 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여름철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원들에 게 전달돼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었다.

이홍신 더 생생한약방 원장은 "본격적인 더 위가 시작되기 전, 체력 관리가 어려운 이웃 과 쉼 없이 땀 흘리는 현장노동자분들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건강한 전주'를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군산 월명동 민규짬뽕, 지역 어르신들에 따듯한 음식 대접

군산시 월명동 착한가게 23호점 '민규짬 뽕'(대표 김민규)이 19일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민규짬뽕'은 월명동 짬뽕특화거리에 위치한 가게로, 식사 나눔, 김치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 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와 모범이 된다.

김민규 대표는 "저희 가게가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은 지역사회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 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월명동 주민들 약 100명,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함 께한 환경정화 캠페인 '쓰담쓰담, 월명동'이 성 공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앞둔 가운데, '쓰레기는 쓰레기봉 투에 담자'라는 불법투기 쓰레기 근절을 목적 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월명동 주민자치 위원회·통장협의회·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뜻을 모아 참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소방본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구급전술 1위'

전국최고현장대응능력입증 소방장 △강지훈소방장 △서영빈

장 이오숙)는 지난 16일부터 18일 력,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최 까지 3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개 고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우승을 최된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 차지했다. 회에서 구급전술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표 구급대원들이 참가한 가운 다. 데, 실전과 유사한 시나리오 속에 자리였다.

전북 대표로 출전한 △이정훈 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방위 △김시원 소방장 △노승환

소방사 등 5명의 구급대원들은 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 월한 응급처치 능력, 침착한 판단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상 에 그치지 않고, '1계급 특별승진'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의 이라는 의미 있는 영예로 이어졌

이는 구급활동이 단순한 경연이 서 구급기술과 대응역량을 겨루는 아닌, 실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 한 중대한 기술임을 다시금 일깨

/김영태 기자



정읍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직원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19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직원 A씨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기관을 로 교묘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 사칭한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 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금융사 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연속하여 인 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긴밀 출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비정 상 거래로 판단, 지급정지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 고 말했다. 와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

에서 금융사기가 의심이 되어 112 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 피해자 휴대폰에 설 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여 더 큰 금융

김순기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이번 대상자인 A씨는 본인 명의 장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 한 협조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자 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5대 양희옥 관장 취임

센터 강당에서 유관기관장과 지역 늘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성단체, 기업체 대표 등 8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 관장의 이임식 및 제5대 양희옥 임명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통해 "센터에서의 시간은 여성의 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 삶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감동의 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연속이었다"면서 "퇴임 후에도 여 내비쳤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일 성의 일자리와 권익 향상을 위해

양희옥 신임관장은 취임사에서 면서 "여성이 지속 가능한 일과 삶 박성숙 전임 관장은 이임사를 을 살아가기 위해 센터가 주도적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전자공장화재예방'비나텍'점검

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관내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덕 설팅을 병행했다. 진구 운암로 소재 ㈜비나텍을 진

전주덕진소방서는 19일 화성 아 행됐다. 비나텍은 이차전지 핵심 부품인 슈퍼커패시터 및 활성탄을

이날 예방안전팀은 사업장 관계 자와 직접 면담하며 △전지 저장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발생해 및 제조공정의 화재위험요인 △배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화 터리 원료의 보관상태 △비상구 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지 확보 및 피난로 관리실태 등을 중 공장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점확인하고, 사례 중심의 안전 컨

/김영태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범준)는 19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완산구 소재 연가대연 회실에서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을 모시고 '제75주년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및 기념식'을 가졌다.

위로연 행사는 전주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25참전 호국영웅을 대상으로 마련한 기념식 으로 고령의 연로하신 참전유공자를 위해 향 군여성회의 식사도우미 봉사와 전주향군에서 준비한 선물로 호국영웅들을 위로했다.

전주향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25전쟁 발발이 어느덧 75년이 지났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알려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 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참전 호국영웅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동부 새마을금고,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진안 동부 새마을금고가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

지난 17일 열린 기탁식에 참여한 서기옥 이 사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 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 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25.7.1.일자) ———

◆국장급 전보인사 내정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25.8.1일자) 유희숙 △농 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장 강영석

◆과장급 전보인사 내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 △법무행정과장 한병 국 △ 안전정책과장 정광모 △ 사회재난과장 박장석 △유산관리과장 이성철 △국제과장 이상욱 △사회 복지정책과장 양수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효 선 △산림자원과장 송경호 △기업유치과장 양선화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

△농식품산업과장 정도건 △동물방역과장 이재욱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서상영 △인재개발원 인재 양성과장 강경덕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최영 두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홍표 △동물위생시험 소장 이성효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상국 △도로관 리사업소장 신형삼 △원광대학교 파견 염기남 △전 북테크노파크 파견 정병종 △외교부 윤세영



11

〈一事一言〉



조은석 특검의 기민성 - 김용현 추가 기소를 환영한다

김관춘

논설위원

내란과 외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증거인 멸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특검'으로 임명된 조 특검이 수사 착수 엿새 만에 거둔 첫 번째 성과이자, '3대 특검' 출 범 이후 나온 첫 기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온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의 사각지대에 서 빠져나가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이번 신속 기소는 사법 정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특검의 강력 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 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사건의 실행 기획자로 지목된 '수괴급' 인물이다. 군 수뇌부를 장악하고 군 내부 조직망을 동원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중대범죄다. 그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이후 진행된 1심 재판 과 정에서도 각종 위증 시도와 증거 왜곡, 방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 된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 법 형사25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 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제약이 걸린 보석 조건에 불만이 컸던지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 신

청까지 감행했다. 자신에게 불리 한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훼방하려는 노림수가 명백히 읽 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의

발빠른 추가 기소는 법정 구속 기 한 만료에 따른 석방 시도를 원 천 차단하고, 사법 절차의 정당성 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실제 로 조 특검은 경찰·검찰과 공조 무엇보다도 오는 26일로 다가 해 사전 수사 기록을 신속히 분석 했고, 지난 18일 밤 사이 곧장 공 소 제기를 완료했다. 혐의는 단순 히 행정적 과오가 아니라, 수시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공무집 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다. 조 특 검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 원에 신속한 병합 심리와 추가 구 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겠다는 방 침도 밝혔다.

> 이는 김 전 장관과 그 배후 세 력의 조직적 범죄를 남김없이 파 헤치겠다는 특검의 확고한 결연 함을 보여준다. 조 특검의 이번 추가 기소가 법원에 의해 발부된 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용현까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참사를 막은 것이어서 여간 다행 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주면서 특검 의 효능감을 안겨줄 것이다.

> 김용현 전 장관의 존재는 단순 한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선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으로 알려졌으며, 군사력을 동원 한 반헌법적 행위에 깊이 관여했 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물이 구속기한 만료라는 형식 적 사유만으로 석방된다면, 그것 은 단지 한 명의 피고인의 석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후 퇴를 의미한다. 그가 풀려난 이후 다시 내란 가담자들과 모의해 증 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실 규명을 방 해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은석 특검의 이 번 조치는 단순한 '기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정 신의 실현이자, 지난 내란 사태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려 는 첫 걸음이다. 조 특검은 특검 임명 후 불과 6일 만에 수사 착 수 및 첫 기소를 완료하며 '시간 이 곧 정의'임을 보여 주었다. 더 이상 권력자에 대한 예우나 지체, 회피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란 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책 임자들을 엄정히 단죄해야만 파 괴되고 유린된 대한민국의 민주 적 기초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제 국민은 특검의 다음 수순 을 지켜보고 있다. 김용현 전 장 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내란 모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 획됐는가? 그리고 당시 최고 권

력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 떤 방식으로 관여했는가? 이 물 음들에 답하는 일은 단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 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 박한 과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조은석 특검 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진정한 정의는 속도를 요한다. 법의 칼날 은 늦지 않게, 그러나 결코 가볍 지 않게 사용되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사범 전원 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이 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단죄 없는 화해를 거 부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 는 침묵 위에 평화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기소는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치의 근간을 흔든 지 난 12.3 내란 기도에 직·간접적으 로 연루된 군부, 고위 공직자, 정 치 세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이 번 특검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정 치적 눈치 보기나 외압에 흔들리 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끝까 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야말 로 특검의 사명이자 시대의 요청 이다. 내란 종사자들의 혐의 입증 에 고군분투하는 조은석 특검의 선전을 기워하다.

전주형 AI 스마트도시, 전북 미래 혁신 모델로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거점 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 면서 도시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선정은 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 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대한 계기 가 될 것이다. 수원과 화성 등 쟁쟁한 도 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거머쥔 이번 쾌거는 단순한 공모 선정 그 이상이다. 총 사업비 325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 로젝트로, 국비 160억을 비롯해 도비와 시비가 함께 집행돼 지자체·중앙정부· 민간의 삼각 협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 동하는 스마트도시의 본보기라 할 만하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도 입을 넘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전주 형 AI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동식 금융서비스, 교통약자 맞 춤형 이동수단, AI 기반 건강관리, 실시 간 도로위험 정보 제공, 시민참여형 탄 소 리워드 등 다방면에서 시민 삶의 질 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담 았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 기능의 통합 과 최적화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게 하는 스마트 도시의 정수를 보 여준다.

전주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데이터 생태계로 전환하 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의료·교통·환 경 등 주요 생활영역의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곧 시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실시간으 로 파악해 대응하는 초개인화 도시관리 시스템의 구현이기도 하다. 이로써 전주 는 기술로 삶을 변화시키는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 북 전역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는 플랫 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역, 한옥 마을, 구시가지 등 중심지역을 기점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근 지자 체로 서비스와 기술을 확산해 전북 전체 의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모 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 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전주시정연구원, 전주대학 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현대차·기아 차·KT·마이크로소프트·전북은행 등 국 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 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령화, 1인 가구, 의료사각지대 등 지역이 안고 있 는 현실적 문제들을 기술 기반으로 정 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찾아가는 진료소, AI 약자돌봄케어 등은 지역사회의 포용 성을 높이는 스마트복지 모델로, 기술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정책 실현의 대표 사 례가 될 것이다.

정동영 의원의 지원은 이번 성과의 중 요한 동력 중 하나였다. 그는 전주시를 '도내 스마트도시 확산의 거점'으로 성 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지금 전주는 단지 기술적 진보의 단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바꾸 고 시민과 공동체, 행정이 서로 연결되 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그 첫 발걸음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 여정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귀결되길 기대한다.

▲ 오늘의 시

들꽃처럼 / 조병화

들을 걸으며 무심코 지나치는 들꽃처럼 삼삼히 살아갈 수는 없을까

너와 내가 서로 같이 사랑하던 것들도 미워하던 것들도 작게 피어난 들꽃처럼

시인 약력: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40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고등사범 학교 물리화학과를 졸업했다. 경성사범학교, 지나가는 바람에 산들산들

삼삼히 흔들릴 수는 없을까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가면 그뿐

정들었던 사람아,

헤어짐을

서울고 교사에 이어 경희대 문과대 학장을 역 임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 아파하지 말자

들꽃처럼, 들꽃처럼, 실로 들꽃처럼

지나가는 바람에 산들산들

아무것도 없었던 거처럼 삼삼히, 그저 삼삼히

화훈장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루만의 위안' '인간고도', '공존의 이유' 등 다수의 작품을 남 겼다. 2003년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순화리 삼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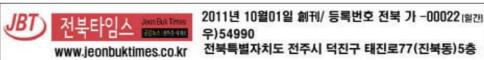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탑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순화리)

완주지국 010-3672-0308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편집국 팩스 283-8800 업무국 팩스 282-9604 전주지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임실지국 010-8642-6502 남원지국 010-2285-3987 중앙지사 010-9678-4271 고장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사-010-5242-3694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는 깊게, 관광은 넓게

김제씨 매력을 더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들에게 힐링과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문화 향유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김제는 민선8기 이후 더 이상 문화와 관광에 낙후된 곳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실천으 로 시민에게는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콘텐 츠를 활용해 김제에서 단순한 관광뿐만아니라 체류형관광객이 증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 이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자.

김제, 전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다.

△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제 문화예 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순항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중인 '김제 문화예 술 커뮤니티센터'는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동 99-1번지 일원에 19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46㎡의 규모로 조 성될 예정으로,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미녀, 코미디 옹알스 히스토리쇼, 파리나무 화 체험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향연, '김제시 문 화의 날'운영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김제시 문화 의 날'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 문화의 날은 문화의 날 주간(매월 마지막 주간)에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 가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업으로 2023년 4회, 2024년 8회, 2025년 5월

△ 김제시 문화예술의 거점지, 김제문화예

문화예술의 거점지로 자리매김한 김제 문 화예술회관은 민선 8기 공약인 지역사회 인 프라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다 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2회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편성하였다.

상반기에는 신춘 트로트 콘서트, 디즈니& 자리매김했다. 픽사 영화 음악 FESTA 등 7회의 공연이 진 행되었고, 하반기에는 발레 잠자는 숲속의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 십자가 소년 합창단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 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질 높은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찿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다.

△ 2025 꽃빛드리축제, 김제 관광과 문화 의 새로운 장을 열다.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김제시민문화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꽃빛드리축 제」는 '꽃처럼 빛나는 청춘'이라는 부제 아 래 아날로그 감성과 세대 간 소통을 조화롭 까지 2회 개최했으며, 이후 4회 더 추진할 예 게 아우르는 힐링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해에 이어 '4가지 없는 축제(술・ 일회용품·유명인사·격식 없음)' 철학을 지 키며, '젊음을 잇다', '사랑을 잇다', '공동체를

시민 문화예술 기회 제공 체류형 관광객 유치 강화

현대, 사람과 지역을 잇는 의미 있는 축제로

△ 광역 자전거길 허브 구축과 체류형 관 광 강화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은 김제시를 중심으로 3개 자전거 코스를 개발·운영하며 체류형 관광 시대를 열고 있다. 자전거 전용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공모사업을 적극 유 도로 표지 설치와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방 문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 △ 관광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으로 '김제' 를 더 특별하게

김제시는'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통 해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과 방문객 간 유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맛.보.자.고 푸드 컴페티션'은 지역 특색 먹 거리 발굴과 음식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외식 전문가 교육과 품평회로 축제 먹거리 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국가유산! 김제의 꿈이 깨어납니다. 잊힌 역사를 다시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다.

△ 김제, 국가유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

다 - 명승 지정부터 유산 복원까지

2025년, 김제시가 국가유산의 핵심 거점으 로 우뚝 섰다.

그 서막은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국가 명 2025년에는 뮤지컬, 연극, 음악, 코미디 등 및다', '지역을 및다'라는 4대 주제로 전통과 승 지정이었다. 이는 국가유산체제 전환 이 김제. 후 첫 번째 성과로, 김제가 대한민국 자연・ 문화유산 정책의 선두에 섰음을 의미한다.

> 시는 멸종위기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선정됐다. 가치를 입증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 정화 기능을 강조하는 등 생태학적 기반을 확실 히 다졌다. 여기에 잊혔던 역사 공간 '낙명 대'의 존재까지 발굴하며 문화와 생태가 융 합된 '융복합 명승'으로 그 위상을 완성했다.

이어 김제시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상징 가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일의 사례이다. 이자 정신의 문이었던 김제 관아 외삼문 복 원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총 66억 원, 4개 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 유산의 도시, 콘텐츠와 체험으로 진화 는 밑거름"이라며"김제는 소중한 국가유산 하다 - 활용사업 5관왕 달성!

김제는 단지 유산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 가꿔 나간다면 계절마다 관광객들이 북적일 았다.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5개 전 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전 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성과다.

관광, 교육, 예술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공해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찾고 싶은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김제 국가유산 야행' 은 그 정점을 찍는 대표적 활용사업이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김제를 찾는 관광객

밤을 유산의 감동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시작되다 - 종교평화 순례사업 선정

△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 김제에서 다시

다종교의 공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도시

2025년, 김제시는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종교평화 순례사업' 대상지로

사업의 무대가 되는 김제 금산면 일대는

불교(금산사), 개신교(금산교회), 천주교(수

류성당), 증산교(증산법종교본부), 동학(원평 집강소) 등 하나의 면 단위에서 다양한 종교

의 성지가 모여있을 뿐 아니라, 이 모두가 국

정성주 김제시장은 "문화와 관광은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증대시킬 뿐만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

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이 만족하고 김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 이제 김제는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경제와 목 보다 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김제=온봉기 기자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사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공모기한 - 2025년 5월27일 (화)~6월20일 (금)

◈참가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작품주제 - 자연사랑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모든내용

>공모부분 -그림 (만화 포함)

지규격 - 8절지 크기 (B4용지)

수방법 - 우편 및 방문 (학교별 단체및 개인접수) ♡특별상 (3명) - 국회의원상

접수처 -유)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진북동),5층 (jbn8800@hanmail.net)

입상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기타문의사항-본사 총무국 063)282-9601~3

♦입상자 처상 - 2025년 9월 13일(토)

♡ 대상(3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의장상

♡최우수상 (4명) - 전주시징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 (20명) - (재)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 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

홈페이지 -www.jeonbuktimes.co.kr

